

## 한국과 중국 여대생의 의복 선호도에 따른 인지 체형 및 신체 만족도 비교 연구

남 영 란 · 김 예 진 · 최 혜 선<sup>+</sup>

이화여자대학교 의류학전공 박사과정 · 이화여자대학교 의류학전공 석사과정 ·  
이화여자대학교 의류학전공 교수<sup>+</sup>

### A Comparative of Satisfaction for Body and Perceived Body Types in Accordance with Clothes Preference between Korean and Chinese Female College Students

Young-Ran Nam · Ye-Jin Kim · Hei-Sun Choi

Doctoral Course, Dept. of Clothing & Textiles, Ewha Womans University  
Master Course, Dept. of Clothing & Textiles, Ewha Womans University  
Professor, Dept. of Clothing & Textiles, Ewha Womans University<sup>+</sup>  
(투고일: 2014. 3. 31, 심사(수정)일: 2014. 5. 29, 게재확정일: 2014. 7. 28)

#### ABSTRACT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figure out the difference in preference of clothes between *Korean* and *Chinese* female college students, who share similar ethnic traits despite having different sociocultural backgrounds and environment, and see the differences in their body image and body satisfaction. The questionnaire-based survey for the study was conducted for about a month and a total of 449 copies of the questionnaire were collected for the final research. For the research method, we examined the differences in clothes preference and fit between *Korean* and *Chinese* students, and then the corresponding differences in body image and body satisfaction. The result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categories of skirt length, pants length, upper garment fit, and lower garment fit. *Korean* students preferred slim fit clothes, while their counterparts preferred natural fits. A comparison of body image between *Korean* and *Chinese* female students showed that the *Korean* students had lower body satisfaction levels, and viewed themselves as fat even though they were slimmer than their counterparts. The conclusion of the analysis was that compared to *Korean* students the *Chinese* students pursued a more comfortable and casual style, preferring unique and diverse designs instead of simply following a fashion trend.

Key words: China female college students(중국 여대생), clothes preference(의복 선호도),  
Korea female college students(한국 여대생), perceived body types(인지 체형),  
satisfaction for body(신체 만족도)

## I. 서론

오늘날 인류가 글로벌화 되면서 소비자 행동은 보편화의 특징이 나타나는 반면, 각 국가의 소비자들의 요구는 다양화되고 개성화되면서,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소비형태가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급변하는 세계 정세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국내 패션 시장의 소비자에 대한 연구뿐만 아니라, 국외 패션 시장의 소비자에 대한 연구 또한 시급하다.<sup>1)</sup>

한국 패션 기업들은 글로벌 기업으로의 성장수단으로 중국 시장에 적극적인 진출을 모색하고 있으며, 중국 내 한류열풍은 이들 기업에 좋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어 중국 시장과 소비자 특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sup>2)</sup> 현재 국내 내셔널 브랜드의 중국진출이 활발한데, 대표적인 예는 E-land그룹으로 Roem, SCOFIELD, TEENIE WEENIE, WHO.A.U 등의 브랜드가 해당되며 최근에는 E-land 그룹의 대표적인 SPA브랜드인 Mixxo, SPAO가 중국과 일본에 진출하였다.<sup>3)</sup> 국내 패션기업은 더 이상 국내 시장만을 목표로 하지 않고, 국외 시장 진출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국외 진출의 시작으로 많은 기업들이 중국 시장을 선택하고 있다. 기존의 국내 내셔널 브랜드가 중국 진출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중국 소비자들의 특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에 패션에 가장 관심이 많은 집단인 20대 여성을 대표할 수 있는 중국과 한국 여대생의 의복 선호도의 차이를 살펴보면 한국 시장에 익숙해져 있는 국내 내셔널 브랜드의 성공적인 중국 진출에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의복 선호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소비자 개개인이 자신의 체형을 어떻게 인지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sup>4)</sup>, 의류 업체에서는 소비자들의 체형 인지와 신체 만족도에 따른 의복 선호도를 정확히 분석하여 의복의 소재, 디자인, 디테일, 패턴에 반영한다면 판매촉진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이다. 의복은 유행과 체형과의 관계 속에서 디자인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소비자들의 자신의 신체상에 대한 생각과 이에 따른 착의행동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다.<sup>5)</sup>

신체 만족도는 자기 자신의 신체 전체 혹은 어떤

각 부위에 대해 만족하는 경우와 불만족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개인이 이상적이라 생각하는 신체치수에 가장 가까울수록 만족도가 높아지고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평가하게 되는데<sup>6)</sup> 특히 한국의 20대 여성은 외모에 대한 관심이 높아 자신의 신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한국 여성들은 가늘고 긴 체형을 이상적인 체형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다른 연령대에 비해 다른 체형임에도 불구하고 신체 만족도는 낮은 편이다.<sup>7)</sup> 또한, 정상체중이라고 할지라도 한국 여대생 대부분이 자신의 체중에 불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sup>8)</sup> 이처럼 사회적, 문화적 차이에 따라 이상 체형에 차이가 있고, 또 이러한 이상 체형이나 사회적인 성향에 따라 스스로가 인지하는 체형이나 신체 만족도 등이 다르게 나타난다.<sup>9)</sup>

신체에 대한 의식구조와 착의 행동은 사회 문화적 환경에 따라 달라지므로<sup>10)</sup>, 한국과 중국 여대생의 의복 선호도, 인지 체형, 신체 만족도에 있어서 차이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며, 개인의 신체 만족도 및 인지 체형은 의복의 구매 및 착용에 있어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한국과 중국 여대생의 의복 선호도에 따른 인지 체형과 신체 만족도에 있어서 어떠한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구체적으로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의류학 분야에서 인지 체형, 신체 만족도, 의복 선호도 관련 국가 간 문화 비교 선행 연구로는 신체 만족도에 따른 선호의복스타일에 대한 한국과 미국 여대생과 비교<sup>11)</sup>, 한국과 몽골 여대생의 실제체형과 인지 체형 및 신체 만족도에 관한 비교<sup>12)</sup>, 한국과 일본 여대생의 실제체형과 인지 체형 및 신체 만족도에 관한 비교<sup>13)</sup>, 한·미 여대생의 실제체형과 인지 체형의 만족도에 관한 비교<sup>14)</sup>, 신체에 대한 의식과 만족도에 대한 한국과 미국여대생의 비교 연구<sup>15)</sup> 등이 있다. 또한, 의류학 분야에서 한국과 중국의 문화 비교 연구로는 한국과 중국 여대생의 의복 맞춤새 선호도 및 의복행동 비교연구<sup>16)</sup>, 한국·중국조선족 여대생의 체형 비교연구<sup>17)</sup>, 중국과 한국 20대 여성의 체간부 신체치수와 체형 비교 분석<sup>18)</sup> 등이 있다.

인지 체형, 신체 만족도, 의복 선호도 관련 한국과 중국의 문화 비교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며, 특히 국내 의류 브랜드의 중국 진출이 활발한 시점에서 중

국 소비자의 요구도를 반영한 의복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매우 의미 있는 연구로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같은 동양권이지만 다른 역사적, 사회적 배경을 지닌<sup>19)</sup> 한국과 중국 여대생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여 의복 선호도의 차이를 밝히고, 그에 따른 인지 체형과 신체 만족도에 있어 어떠한 차이가 나타나는지 살펴보고자하며 구체적인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과 중국 여대생의 의복 선호도(선호하는 스커트 길이, 팬츠 길이, 상하의 선호 색상, 선호 스타일, 상하의 선호 맞춤새)의 차이를 비교 분석한다.

둘째, 한국과 중국 여대생의 인지 체형 및 신체 만족도의 차이를 비교 분석한다.

셋째, 한국과 중국 여대생의 의복 선호도에 따른 인지 체형 및 신체 만족도의 차이를 비교 분석한다.

## II. 연구 방법

### 1. 조사 대상 및 조사 기간

본 연구는 한국과 중국 여대생을 대상으로 2014년 1월 20일부터 2월 17일까지 약 한 달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한국 여대생을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은 KSDC 온라인 설문조사 사이트를 이용하여 설문이 진행되었으며, 중국 여대생의 경우 중국 대학에 다니고 있으면서 한국 어학원 및 어학당에 단기 유학중

인 중국 여대생을 대상으로 오프라인 설문이 진행되었다. 중국 여대생의 설문 대상은 한국 체류기간이 6개월 미만인 학생들로 제한하였다. 총 460명에게 설문지를 배포하여 불성실하게 응답한 자료로 판단된 11부를 제외한 총 449부가 최종 연구자료로 활용되었다. 총 449부의 연구자료 중 한국 여대생의 응답자료 208부, 중국 여대생의 응답자료 241부가 최종 연구 자료로 사용되었다. <표 1>은 응답자의 연령, 중국 여대생 거주지역에 대한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 2. 설문 방법 및 설문지 구성

의복 선호도, 인지 체형, 신체 만족도 관련 선행연구<sup>20)</sup>를 토대로 예비 설문지와 인터뷰 문항을 구성하였다. 2014년 1월 10일 부터 1월 15일 까지 한국 여대생과 중국 여대생 각각 13명을 대상으로 예비 설문과 인터뷰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본 조사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본 조사 설문지 구성 후, 예비 설문에 참여한 유학생과 석사과정 이상의 의류학 전공 전문가 8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검토 받았으며 이를 토대로 최종 보완하여 본 조사 설문지를 완성하였다. 한국어 실력이 부족한 중국 여대생을 위해 본 조사 설문지는 중국어 번역본으로 제작하여 배포하였다.

설문 항목은 총 63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표 1> 응답자의 일반적 사항

구분		한국 여대생	중국 여대생	합계(%)
연령	20대 초반(20~23)	166(79.8)	167(69.3)	449(100.0)
	20대 중반(24~26)	40(19.2)	53(22.0)	
	20대 후반(27~29)	2( 1.0)	21( 8.7)	
합계		208(100.0)	241(100.0)	
중국 여대생 거주지역	동북	62(26.7)		232(100.0)
	화동	58(25.0)		
	화북	46(19.8)		
	중남	38(16.4)		
	서남	23( 9.9)		
	서북	5( 2.2)		

〈표 2〉 설문 구성 항목 및 응답 방법

No.	설문 문항	세부 사항	응답 방법	문항수
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연령, 거주지역	주관식	2
2	실제치수 및 이상치수	키, 몸무게, 가슴둘레, 허리둘레, 엉덩이둘레	주관식	10
3	의복 선호도	선호하는 스커트 길이, 팬츠 길이, 상하의 선호 색상, 스타일, 상하의 선호 Fit(맞음새)	객관식	7
4	본인 인지 체형	전신, 상반신, 하반신 각각의 인지 체형, 신체 부분별 인지 체형	5점 Likert	22
5	본인 신체 만족도	전신, 상반신, 하반신 각각의 신체 만족도, 신체 부분별 신체 만족도	5점 Likert	22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과 관련된 문항(2문항), 응답자의 실제치수 및 이상치수 관련 문항(10문항), 의복 선호도 관련 문항(7문항), 인지 체형 관련 문항(22문항), 의복 만족도 관련 문항(22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설문지의 구성 항목 및 응답 방법은 〈표 2〉에 제시하였다.

### 3. 분석 방법

본 연구의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SPSS 20.0 for Windows를 사용하였으며, 통계 분석은 의복 선호도, 인지 체형, 신체 만족도와 관련된 변수에 대하여 기술통계, 독립표본 t-test, 카이제곱( $\chi^2$ ) 분석, 일원분산분석, 사후검증, 이원분산분석, 신뢰도 분석이 사용되었다.

한국과 중국 여대생의 의복 선호도 비교를 위해서 카이제곱( $\chi^2$ )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한국과 중국의 여대생의 실제 인체치수, 이상 인체치수, 인지 체형 및 신체 만족도의 평균값 비교를 위해 독립표본 t-test를 실시하였다. 또한, 국적분류와 인지 체형에 따른 신체 만족도를 살펴보기 위해서 이원 분산분석(Anova)과,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의복 선호도에 따른 인지 체형 및 신체 만족도를 살펴보기 위해서 독립표본 t-test, 일원분산분석 및 사후검증, 신뢰도분석을 실시하였다.

## Ⅲ. 연구결과 및 고찰

### 1. 한국과 중국 여대생의 의복 선호도 비교

한국과 중국 여대생의 선호하는 의복의 길이 및 맞음새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는 〈표 3〉에 나타내었다. 자주 착용하고 구매하는 의복으로 스커트의 길이 부분에서는 '미니스커트'(55.9%), '네츄럴/니렁스라인'(27.2%)의 순으로 나타나, '미니스커트'가 55.9%로 과반수를 넘어 대부분의 한국과 중국 여대생들이 선호하는 스커트 길이로 나타났다. 한국 여대생은 중국 여대생에 비해 더 높은 비율로 '미니스커트'를 착용하고 구입하는 반면, 중국 여대생은 한국 여대생에 비해 더 높은 비율로 '네츄럴/니렁스라인', '미디스커트', '맥시/앵클스커트'를 착용하고 구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p < .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한국 여대생과 중국 여대생이 선호하는 스커트의 길이에 있어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된다.

자주 착용하고 구매하는 항목으로 팬츠 길이에서는 '슬랙스'(41.2%), '숏팬츠'(31.8%)의 순으로 나타나 한국과 중국 여대생들이 일반적인 '슬랙스' 또는 최근 트렌드인 '숏팬츠'를 즐겨 착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여대생과 중국 여대생의 선호하는 팬츠 길이의 차이를 살펴보면, 한국의 경우 '숏팬츠'와 '자메이카'와 같은 짧은 기장의 팬츠를 중국에 비해 더 높은 비율로 착용하며, 중국의 경우도 '슬랙스'와 '숏팬츠'를 대부분 착용하지만 '페달푸셔'와 '카프리' 팬

츠는 한국에 비해 착용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았다. 즉, 한국 여대생에 비해 중국 여대생들은 '페달퓨셔', '카프리'와 같은 다양한 팬츠 기장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p < .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한국 여대생과 중국 여대생이 선호하는 팬츠의 길이에 있어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된다.

상의 선호 맞춤새 항목에서는 '내츄럴핏'(37.9%), '슬림핏'(26.9%), '릴렉스드핏'(22.3%)의 순으로 나타나 활동성이 좋고 편안한 '내츄럴핏'을 가장 선호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여대생은 중국 여대생에 비해 더 높은 비율로 '슬림핏 상의'를 선호하고 착용하는 반면, 중국 여대생은 한국 여대생에 비해 더 높은 비율로 '내츄럴핏 상의'와 '릴렉스드핏 상의'를 선호하고 착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p < .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한국 여대생과 중국 여대생이 선호하는 의복의 상의 맞춤새가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릴렉스드핏'의 경우, 중국 여대생이 한국 여대생에 비해 높은 비율로 선호하였으며 '오버사이즈핏'의 경우 한국 여대생이 중

<표 3> 한국과 중국 여대생의 선호하는 의복의 길이 및 맞춤새 비교

단위 : 빈도수(%)

설문문항		한국여대생 (n=208)	중국여대생 (n=241)	합계 (%)	Chi-Square
선호하는 스커트 길이	미니스커트(무릎위)	153(73.6)	98(40.7)	251(55.9)	57.842***
	내츄럴/니렁스라인(무릎선)	43(20.7)	79(32.8)	122(27.2)	
	미디스커트(무릎과발목중간)	3(1.4)	34(14.1)	37(8.2)	
	맥시/앵클스커트(무릎,발목길이)	9(4.3)	30(12.4)	39(8.7)	
Total		208(100.0)	241(100.0)	449(100.0)	
선호하는 팬츠 길이	숏팬츠	69(33.2)	74(30.7)	143(31.8)	50.323***
	자메이카(허벅지와무릎중간)	30(14.4)	7(2.9)	37(8.2)	
	버뮤다(무릎약간위)	7(3.4)	13(5.4)	20(4.5)	
	페달퓨셔(종아리길이)	2(1.0)	20(8.3)	22(4.9)	
	카프리(종아리와 발목중간)	6(2.9)	36(14.9)	42(9.4)	
	슬렉스(발목)	94(45.2)	91(37.8)	185(41.2)	
Total		208(100.0)	241(100.0)	449(100.0)	
상의 선호 맞춤새	스트레치핏	8(3.8)	12(5.0)	20(4.5)	46.299***
	슬림핏	69(33.2)	52(21.6)	121(26.9)	
	내츄럴핏	70(33.7)	100(41.5)	170(37.9)	
	릴렉스드핏	28(13.5)	72(29.9)	100(22.3)	
	오버사이즈핏	33(15.9)	5(2.1)	38(8.5)	
Total		208(100.0)	241(100.0)	449(100.0)	
하의 선호 맞춤새	스트레치핏	36(17.3)	35(14.5)	71(15.8)	54.966***
	슬림핏	137(65.9)	88(36.5)	225(50.1)	
	내츄럴핏	28(13.5)	82(34.0)	110(24.5)	
	릴렉스드핏	7(3.4)	33(13.7)	40(8.9)	
	오버사이즈핏	0(0.0)	3(1.2)	3(0.7)	
Total		208(100.0)	241(100.0)	449(100.0)	

■ : 국가 분류에 따라 빈도수가 높은 1.2 순위 (\*\*\*) $p < .001$

국 여대생에 비해 높은 비율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중국은 편안하고 실용적인 핏을 선호하는 반면, 한국 여대생들은 최근 트렌드를 반영하여 '오버사이즈핏'이나, '슬림핏'을 선호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하의 선호 맞춤새 항목에서는 '슬림핏'(50.1%), '내츄럴핏'(24.5%), '스트레치핏'(15.8%)의 순으로 나타나 몸매가 드러나는 '슬림핏'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여대생은 중국 여대생에 비해 더 높은 비율로 '슬림핏'과 '스트레치핏'을 선호하고 착용하는 반면, 중국 여대생은 한국 여대생에 비해 더 높은 비율로 '내츄럴핏'을 선호하고 착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p < .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한국 여대생과 중국 여대생이 선호하는 의복의 하의 맞춤새 또한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한국에 비해서 중국은 다양한 맞춤새를 선호하는 반면, 한국은 '스트레치핏'과, '슬림핏'을 대부분 착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과 중국 여대생의 선호하는 의복의 색상 비교에 관한 조사 결과는 <표 4>에 나타내었다. 자주 착

용하고 선호하는 상의 색상으로는 의복으로는 '무채색계열'(50.6%), '핑크계열'(14.0%), '파란계열'(12.0%)의 순으로 나타나, '무채색계열'이 50.6%로 과반수를 넘어 대부분의 한국과 중국 여대생들이 선호하는 상의 색상으로 나타났다. 한국 여대생은 중국 여대생에 비해 더 높은 비율로 '무채색계열', '빨간계열' 상의를 착용하고 구입하는 반면, 중국 여대생은 한국 여대생에 비해 '무채색계열', '빨간계열'을 제외하고 모든 색상계열에서 더 높은 비율로 상의 의복 색상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p < .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한국 여대생과 중국 여대생이 선호하는 상의의 색상에 있어서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과 중국 여대생들이 자주 착용하고 선호하는 하의 색상으로는 '무채색계열'(83.9%), '파란계열'(11.4%)의 순으로 나타나 '무채색계열'이 대다수의 한국과 중국 여대생들이 선호하는 하의 색상으로 나타났다. 한국 여대생은 중국 여대생에 비해 더 높은 비율로 '무채색계열'를 선호하고 착용하는 반면, 중국 여대생은 한국 여대생에 비해 더 높은 비율로 '파란계열' 및

<표 4> 한국과 중국 여대생의 선호하는 의복의 색상 비교

단위 : 빈도수(%)

설문항목		한국여대생 (n=208)	중국여대생 (n=241)	합계(%)	Chi-Square
상의 선호 색상	빨간계열	33(15.9)	20(8.3)	53(11.8)	23.294**
	핑크계열	22(10.6)	41(17.0)	63(14.0)	
	주황계열	5(2.4)	11(4.6)	16(3.6)	
	노랑계열	6(2.9)	14(5.8)	20(4.5)	
	녹색계열	1(0.5)	8(3.3)	9(2.0)	
	파란계열	22(10.6)	32(13.3)	54(12.0)	
	보라계열	1(0.5)	6(2.5)	7(1.6)	
	무채색계열	118(56.7)	109(45.2)	227(50.6)	
Total		208(100.0)	241(100.0)	449(100.0)	
하의 선호 색상	무채색계열	186(89.4)	190(79.2)	376(83.9)	8.737*
	파란계열	16(7.7)	35(14.6)	51(11.4)	
	기타색상	6(2.9)	15(6.3)	21(4.7)	
Total		208(100.0)	240(100.0)	448(100.0)	

■ : 국가 분류에 따라 빈도수가 높은 1.2 순위 (\* $p < .05$ , \*\* $p < .01$ )

‘기타색상’을 선호하고 착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p<.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한국 여대생과 중국 여대생이 선호하는 하의 색상이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과 중국의 선호하는 의복의 색상을 비교한 결과, 대체적으로 한국 여대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국 여대생 집단이 더욱 다양한 색상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한국과 중국 여대생의 선호하는 의복 스타일 비교에 관한 조사 결과는 <표 5>에 나타내었다. 자주 착용하고 선호하는 의복 스타일로는 ‘캐주얼’(46.3%), ‘모던’(12.9%), ‘트렌디’(9.8%), ‘페미닌’(9.8%)의 순으로 나타나, 한국과 중국 여대생 모두 활동하기 편한 ‘캐주얼’을 가장 선호하는 의복 스타일로 나타났다. 한국 여대생은 중국 여대생에 비해 더 높은 비율로 ‘모던’, ‘클래식’, ‘페미닌’ 스타일을 착용하고 구입하는 반면, 중국 여대생은 한국 여대생에 비해 더 높은 비율로 ‘캐주얼’과 ‘스포티’ 스타일을 착용하고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p<.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한국 여대생과 중국 여대생이 선호하는 의복 스타일이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상으로 한국과 중국 여대생의 의복 선호도를 비교한 결과, 대체적으로 한국은 유행하는 스타일과 핏에 따라 의복을 착용하는 반면 중국 여대생은 상대

적으로 각자의 개성적인 의복 스타일과 색상을 추구하는 것으로 보여졌다. 한국과 일본 여대생의 의복행동을 비교한 박재경 외(21)의 연구결과에서도 한국은 실제로 착용하는 의복형태는 2~3가지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일본은 좀 더 다양한 의복 형태를 선호하는 것으로 보여져 한국 여대생의 의복 선호도 및 형태에 있어서는 본 연구의 결과와 비슷한 경향을 보인다.

## 2. 한국과 중국 여대생의 인지 체형 및 신체 만족도 비교

### 1) 한국과 중국 여대생의 실제 인체치수 및 이상적 인체치수 비교

한국과 중국 여대생의 실제 인체치수 및 이상적 인체치수를 비교한 결과는 <표 6>에 나타내었다. 한국과 중국 여대생의 실제 인체치수를 비교해 보면, ‘실체키’( $p<.001$ ), ‘실체몸무게’( $p<.01$ ), ‘실체가슴둘레’( $p<.001$ )의 항목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항목 모두 중국 여대생의 인체치수 값이 높게 나타났다. 한국과 중국 여대생의 이상적 인체치수를 비교해 보면, ‘이상키’( $p<.05$ ), ‘이상몸무게’( $p<.001$ ), ‘이상가슴둘레’( $p<.001$ ), ‘이상BMI’( $p<.01$ )의 항목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항목 모두 중국 여대생의 인체치수 값이

<표 5> 한국과 중국 여대생의 선호하는 의복 스타일 비교

단위 : 빈도수(%)

설문 항목		한국여대생 (n=208)	중국여대생 (n=241)	합계(%)	Chi-Square
선호하는 의복 스타일	트렌디	19(9.1)	25(10.4)	44(9.8)	40.622***
	캐주얼	88(42.3)	120(49.8)	208(46.3)	
	스포티	2(1.0)	27(11.2)	29(6.5)	
	모던	39(18.8)	19(7.9)	58(12.9)	
	클래식	20(9.6)	14(5.8)	34(7.6)	
	로맨틱	11(5.3)	21(8.7)	32(7.1)	
	페미닌	29(13.9)	15(6.2)	44(9.8)	
Total		208(100.0)	241(100.0)	449(100.0)	

■ : 국가 분류에 따라 빈도수가 높은 1.2 순위 (\*\*\*) :  $p<.001$

〈표 6〉 한국과 중국 여대생의 실제 인체치수 및 이상적 인체치수 비교

설문항목		국적(N)	Mean(S,D)	t-value
키 (cm)	실제키	한국(n=208)	161.88(5.0)	-4.646***
		중국(n=241)	164.00(4.6)	
	이상키	한국(n=208)	166.15(3.3)	
		중국(n=230)	166.81(3.3)	
몸무게 (kg)	실제몸무게	한국(n=204)	51.64(6.7)	-3.240**
		중국(n=227)	53.90(7.6)	
	이상몸무게	한국(n=206)	47.37(4.2)	
		중국(n=225)	48.93(4.4)	
가슴둘레 (cm)	실제가슴둘레	한국(n=92)	80.75(7.0)	-6.438***
		중국(n=90)	88.02(8.2)	
	이상가슴둘레	한국(n=110)	84.74(7.4)	
		중국(n=85)	89.92(7.5)	
허리둘레 (inch)	실제허리둘레	한국(n=158)	26.47(3.1)	-1.115
		중국(n=68)	27.04(3.7)	
	이상허리둘레	한국(n=163)	24.95(2.6)	
		중국(n=64)	26.17(7.7)	
엉덩이둘레 (cm)	실제엉덩이둘레	한국(n=59)	91.42(3.6)	0.650
		중국(n=73)	90.75(7.8)	
	이상엉덩이둘레	한국(n=80)	90.86(3.9)	
		중국(n=68)	89.34(7.2)	
BMI (kg/m <sup>2</sup> )	실제BMI	한국(n=204)	19.68(2.1)	-1.542
		중국(n=227)	20.03(2.5)	
	이상BMI	한국(n=206)	17.16(1.3)	
		중국(n=221)	17.58(1.5)	

□: 유의차가 나타난 항목, : 유의차가 나타난 항목 중 평균값이 더 높은 집단  
(\* $p < .05$ , \*\* $p < .01$ , \*\*\* $p < .001$ )

높게 나타났다.

한국과 중국 여대생의 실제 인체치수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중국 여대생이 키와 몸무게가 더 크고, 가슴둘레가 더 큰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인체치수에 대해서는 키, 몸무게, 가슴둘레의 항목에서 한국 여대생에 비해 중국 여대생이 절대적 인체치수는 더 크기를 희망하며, 이상적인 BMI의 값에서는 한국 여대생이 중국 여대생에 비해 더 BMI 지수가 낮아지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표 6〉의 경우, 실제 치수와 이상적 치수의 평균값만을 비교 분석한 것이므로 추가적으로 한국과 중

국 여대생의 이상적 신체치수와 실제 인체치수의 차이를 비교 분석하였다.〈표 7〉 이상적 인체치수와 실제 인체치수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한국 여대생들이 중국 여대생들에 비해 키와 가슴둘레는 더 크기를 희망하였으며, 허리둘레와 BMI지수는 더 작아지기를 희망하였다. 중국 여대생들은 한국 여대생들에 비해 몸무게와 엉덩이 둘레가 더 작아지기를 희망하였다.

## 2) 한국과 중국 여대생의 인지 체형 비교

한국과 중국 여대생의 인지 체형에 관련된 문항은 5점에 가까울수록 본인의 체형이 통통하다고 인지하

〈표 7〉 이상적 신체치수와 실제 신체치수의 차이

항목	중국	한국
이상키-실제키	+2.81	+4.27
이상몸무게-실제몸무게	-4.97	-4.27
이상가슴둘레-실제가슴둘레	+1.9	+3.99
이상허리둘레-실제허리둘레	-0.87	-1.52
이상엉덩이둘레-실제엉덩이둘레	-1.41	-0.56
이상BMI-실제BMI	-2.45	-2.52

■ : 각 항목별 절대값이 큰 항목

는 것으로 해석되며 결과는 〈표 8〉에 나타내었다. 한국과 중국 여대생 집단에서 모두 하반신 인지 체형의 평균값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전신, 상반신의 순으로 나타났다. 즉, 중국과 한국 모두 상대적으로 하반신이 가장 통통하다고 인지하고 상반신이 가장 마른 것으로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과 중국 여대생의 인지 체형에 대해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항목은 '전신 인지 체형'(p<.01), '상반신 인지 체형'(p<.01)로, 한국 여대생들이 중국 여대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전신과 상반신 항목에 있어서 자신의 체형이 더 말랐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박재경 외<sup>22)</sup>의 연구에서는 한국과 몽골 여대생의 실제 체형과 인지 체형을 비교 분석한 결과, 신체부위별 크기인식은 두 집단 모두 하체에 대해 굵거나 뚱뚱하다고 인식하였으며, 한국 여대생이 몽골여대생에 비해 실제체형에서는 더 가늘었음에 불구하고 더 굵고 뚱뚱하게 인식하였으며 이러한 연구결과는 한국과 중국 여대생의 인지 체형을 비교한 본 연구 결과

와 비슷한 경향으로 나타났다.

신체 부분별 인지 체형은 설문을 통해 5점 척도 (1=작다/가늘다, 5=크다/굵다)로 측정하였다. 응답자들의 부위별 크기 인식에 의한 체형을 의미하며, 한국과 중국 여대생의 신체 부분별 인지 체형 비교 결과는 〈표 9〉에 나타내었다. 한국과 중국 여대생의 신체 부분별 인지 체형 항목 중 평균값이 높은 항목들을 각각 살펴보면 한국의 경우 '아랫배가 나왔다', '힙이 나왔다', '허벅지가 굵다'의 항목에서 평균값이 높게 나왔으며, 중국의 경우 '골반이 넓다', '허벅지가 굵다', '종아리가 굵다'의 항목에서 평균값이 높게 나와 한국과 중국 모두 하반신 관련 부분을 굵거나 크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는 앞서 하반신 인지 체형의 항목에서 통통하다고 인식하는 결과와 비슷한 맥락으로 해석된다. 한국과 중국 여대생의 부분별 인지 체형에 대한 평균값을 비교한 결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문항은 '키가 크다(p<.05)', '어깨가 솟은 편이다(p<.001)', '가슴이 크다(p<.05)', '아랫배가

〈표 8〉 한국과 중국 여대생의 인지 체형 비교

구분	설문문항	Mean(S.D)		Total Mean (S.D)	t-value
		한국여대생 (n=208)	중국여대생 (n=241)		
체형 인지도	전신 인지 체형	2.90(1.00)	3.15(0.93)	3.03(0.97)	-2.644**
	상반신 인지 체형	2.73(1.09)	3.02(0.96)	2.88(1.04)	-3.009**
	하반신 인지 체형	3.24(1.12)	3.33(0.94)	3.29(1.02)	-0.940

1점:마름, 2점:약간마름, 3점:보통(표준), 4점:약간통통, 5점:통통, 5점으로 갈수록 본인의 체형이 통통하다고 인지 (\*\*p<.01), : 유의차가 나타난 항목, : 평균값이 더 높은 집단

〈표 9〉 한국과 중국 여대생의 신체 부분별 인지 체형 비교

구분	설문문항	Mean(S.D)		Total Mean (S.D)	t-value
		한국여대생 (n=208)	중국여대생 (n=241)		
키/얇은키인지	키가 크다	2.53(1.30)	2.81(1.11)	2.68(1.21)	-2.388*
	얇은키가 크다	2.79(1.11)	2.83(1.00)	2.82(1.05)	-0.408
상반신 신체 인지	목이 굵다	2.38(1.10)	2.49(0.99)	2.44(1.04)	-1.013
	목이 길다	2.76(1.04)	2.76(0.98)	2.76(1.01)	0.010
	어깨가 넓다	2.59(1.28)	2.80(1.06)	2.70(1.17)	-1.917
	어깨가 솟은편 이다	2.13(1.00)	2.51(1.00)	2.33(1.01)	-4.036***
	가슴이 크다	2.32(1.24)	2.56(1.02)	2.45(1.13)	-2.167*
	팔이 길다	3.15(1.22)	3.02(2.15)	3.08(1.78)	0.785
	팔뚝이 굵다	2.73(1.28)	2.81(1.09)	2.77(1.18)	-0.773
	허리가 굵다	2.68(1.25)	2.80(1.13)	2.75(1.19)	-1.123
	허리가 길다	2.60(1.14)	2.65(0.88)	2.62(1.01)	-0.526
	아랫배가 나왔다	3.40(1.24)	3.07(1.20)	3.22(1.23)	2.815**
하반신 신체 인지	골반이 넓다	3.13(1.22)	3.15(1.06)	3.14(1.14)	-0.097
	힙이 나왔다	3.36(1.19)	2.82(0.98)	3.07(1.12)	5.173***
	밀위가 길다	2.81(0.81)	2.67(0.90)	2.74(0.86)	1.737
	다리가 길다	2.76(1.11)	2.70(1.07)	2.76(1.09)	0.089
	허벅지가 굵다	3.51(1.22)	3.23(1.17)	3.36(1.20)	2.497**
	종아리가 굵다	3.16(1.32)	3.10(1.16)	3.13(1.23)	0.541
	발목이 굵다	2.62(1.34)	2.68(1.09)	2.65(1.21)	-0.483

1=작다/가늘다, 5=크다/굵다, 5점으로 갈수록 크거나 굵음을 의미 (\* $p<.05$ , \*\* $p<.01$ , \*\*\* $p<.001$ )

□: 유의차가 나타난 항목, : 평균값이 더 높은 집단

나왔다( $p<.01$ ), '힙이 나왔다( $p<.001$ )', '허벅지가 굵다( $p<.01$ )'의 항목이다. '키가 크다', '어깨가 솟은 편 이다', '가슴이 크다'의 항목에서는 중국 여대생의 평균값이 더 높게 나와 중국 여대생이 한국 여대생에 비해 키는 크고, 어깨는 솟고, 가슴이 더 크다고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랫배가 나왔다', '힙이 나왔다', '허벅지가 굵다'의 항목에서는 한국 여대생의 평균값이 더 높게 나와 한국 여대생이 중국 여대생에 비해 아랫배와 힙이 나오고, 허벅지가 굵다고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3) 한국과 중국 여대생의 신체 만족도 비교

한국과 중국 여대생의 신체 부분별 만족도 비교에 관한

문항은 5점에 가까울수록 자신의 체형에 만족하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결과는 〈표 10〉에 나타내었다. 한국 여대생 집단에서는 '하반신 체형 만족도'(M=2.26)가 가장 낮다고 평가하였으며, 중국 여대생 집단에서도 '하반신 체형 만족도'(M=2.56)가 가장 낮은 것으로 평가되어 두 집단 모두 하반신에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반신 체형 만족도'( $p<.01$ ), '하반신 체형 만족도'( $p<.01$ )의 항목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나 해당 항목은 한국 여대생과 중국 여대생의 체형 만족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여대생은 중국 여대생보다 상반신과 하반신 체형 모두에서 더 불만족스럽다고 인지하고 있었다.

한국과 중국 여대생의 신체 부분별 만족도 비교에 관한 조사는 항목이 5점에 가까울수록 자신의

〈표 10〉 한국과 중국 여대생의 신체 만족도 비교

구분	설문문항	Mean(S.D)		Total Mean (S.D)	t-value
		한국여대생 (n=208)	중국여대생 (n=241)		
신체 만족도	전신 체형 만족도	2.46(1.08)	2.63(1.01)	2.55(1.04)	-1.675
	상반신 체형 만족도	2.47(1.10)	2.75(1.04)	2.62(1.07)	-2.782**
	하반신 체형 만족도	2.26(1.10)	2.56(1.07)	2.42(1.09)	-2.881**

1점:만족하지않는다, 2점:약간만족하지않는다, 3점:보통이다, 4점:약간만족한다, 5점:만족한다, 5점으로 자신의 체형에 만족 (\* $p<.05$ , \*\* $p<.01$ , \*\*\* $p<.001$ )

□: 유의차가 나타난 항목, : 평균값이 더 높은 집단

체형에 만족하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결과는 〈표 11〉에 나타내었다. 한국 여대생 집단에서는 '허벅지 굵기'(M=2.18)가 가장 불만족스럽다고 평가하였으며, 다음으로는 '아랫배 나온 정도'(M=2.30)와 '가

〈표 11〉 한국과 중국 여대생의 신체 부분별 만족도 비교

구분	설문문항	Mean(S.D)		Total Mean (S.D)	t-value
		한국여대생 (n=208)	중국여대생 (n=241)		
키/얇은키 만족도	키	2.86(1.37)	2.81(1.16)	2.83(1.26)	0.385
	얇은키	2.87(1.05)	2.99(1.04)	2.94(1.04)	-1.229
상반신 신체만족도	목굵기	3.13(1.10)	3.25(0.99)	3.19(1.04)	-1.256
	목길이	2.93(1.15)	3.20(1.01)	3.08(1.08)	-2.706**
	어깨너비	2.96(1.17)	3.07(1.03)	3.02(1.10)	-1.088
	어깨경사	3.12(1.08)	3.18(0.95)	3.15(1.01)	-0.658
	가슴크기	2.36(1.20)	2.80(0.98)	2.59(1.11)	-4.257***
	팔길이	3.32(1.01)	3.29(0.90)	3.30(0.95)	0.341
	팔뚝굵기	2.82(1.22)	2.85(1.06)	2.84(1.14)	-0.306
	허리둘레	2.75(1.17)	2.76(1.05)	2.76(1.10)	-0.174
	허리길이	2.84(0.96)	3.00(0.94)	2.92(0.95)	-1.720
하반신 신체만족도	아랫배나온정도	2.30(1.12)	2.51(1.10)	2.41(1.11)	-2.019*
	엉덩이너비	2.61(1.07)	2.73(0.95)	2.67(1.01)	-1.243
	힙나온정도	2.63(1.13)	2.74(1.00)	2.69(1.06)	-1.165
	밑위길이	2.93(0.78)	3.09(2.11)	3.01(1.64)	-1.028
	다리길이	2.60(1.22)	2.76(1.11)	2.68(1.16)	-1.437
	허벅지굵기	2.18(1.06)	2.52(1.14)	2.36(1.12)	-3.308***
	종아리굵기	2.38(1.17)	2.56(1.16)	2.47(1.17)	-1.596
발목굵기	2.94(1.30)	2.97(1.15)	2.96(1.22)	-0.210	

1점:만족하지않는다, 2점:약간만족하지않는다, 3점:보통이다, 4점:약간만족한다, 5점:만족한다, 5점으로 갈수록 자신의 체형에 만족 (\* $p<.05$ , \*\* $p<.01$ , \*\*\* $p<.001$ )

□: 유의차가 나타난 항목, : 평균값이 더 높은 집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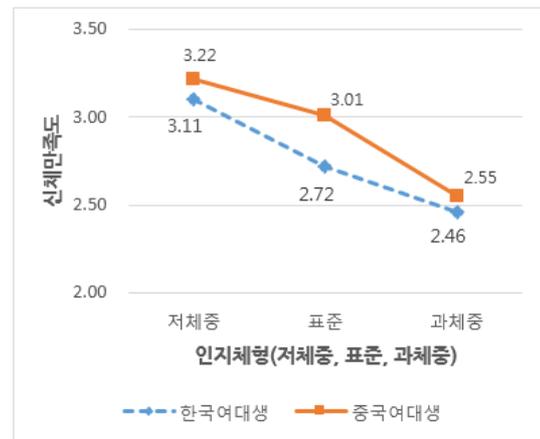
슴크기'(M=2.36) 문항을 불만족스러운 것으로 평가하였다. 중국 여대생 집단에서는 '아랫배 나온 정도'(M=2.51)의 만족도가 가장 좋지 않다고 평가하였으며, 다음으로는 '허벅지 굵기'(M=2.52)와 '종아리 굵기'(M=2.56)의 문항을 불만족스러운 것으로 평가하였다. '목길이'(p<.01), '가슴크기'(p<.001), '아랫배 나온 정도'(p<.05), '허벅지 굵기'(p<.001) 항목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나 해당 항목은 한국과 중국 여대생의 본인 체형에 대한 만족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여대생은 중국 여대생에 비해 유의차가 나타난 항목인 '목길이', '가슴크기', '아랫배 나온 정도', '허벅지 굵기' 항목 모두에서 중국 여대생에 비해 해당 항목의 신체 부위가 더 불만족스럽다고 인지하고 있었다.

4) 한국과 중국 여대생의 인지 체형(저체중, 표준, 과체중)에 따른 신체 만족도

한국과 중국 여대생의 인지 체형에 따른 신체 만족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독립변수를 국적분류(한국, 중국)와 인지 체형(저체중, 표준, 과체중)으로 정하고, 종속변수에는 신체 만족도 관련 19개 설문 문항(신체 부위별 만족도의 설문 문항)의 평균값을 계산하여 신체 만족도라하여 이원 분산분석 하였으며, 통계 분석한 결과는 <표 12>와 같다. 인지 체형 구분은 전신 인지 체형의 설문 항목을 토대로 마름, 약간마름을 선택한 집단은 '저체중', 보통을 선택한 집단은 '표준', 약간뚱뚱, 뚱뚱을 선택한 집단은 '과체중'으로 구분하

여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신체 만족도의 Cronbach's Alpha 값은 0.89로 나타났다.

<표 12>는 신체 만족도에 대한 국적 분류와, 인지 체형에 대한 주효과 및 두변수의 상호작용 효과가 있는지 나타낸 표이다. 먼저 상호작용 효과를 보면 두 독립변수 간의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주효과를 살펴보면, 먼저 인지 체형에 대한 신체 만족도는 유의수준 p<.001로 나타나 인지 체형에 따라 신체 만족도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또한, 국적분류에 대한 신체 만족도는 유의수준 p<.01로 국적분류에 따라 신체 만족도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따라서 각각의 독립변수에 대한 신체 만족도에는 영향을 주지만, 두 독립변수



<그림 1> 한국과 중국 여대생의 인지 체형에 따른 신체 만족도

<표 12> 한국과 중국 여대생의 인지체형에 따른 신체 만족도

종속변수	독립변수	Type III Sum of Squares	자유도	평균제곱	F-value
신체 만족도	인지체형	26.492	2	13.246	36.518***
	국적분류	2.883	1	2.883	7.948**
	인지체형*국적분류	0.981	2	.490	1.352
	오차	160.689	443	.363	
	합계	3801.560	449		
	수정합계	191.767	448		

\*\*p<.01, \*\*\*p<.001, a.RSquared=.162 (Adjusted RSquared=.153)  
인지체형의 분류는 저체중, 표준, 과체중, 국적분류는 한국여대생과 중국여대생

간의 교호작용 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독립변수 간의 교호작용은 없었으나, 도표를 통해 각 독립변수에 따라 신체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살펴본 결과는 <그림 1>에 나타내었다. 도표를 통해 인지 체형(저체중, 표준, 과체중)에 상관없이 한국 여대생에 비해 중국 여대생의 신체 만족도 평균값이 모든 집단에서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한국과 중국 여대생 모두 자신의 체형이 마르다고 인지할수록 신체 만족도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 3. 한국과 중국 여대생의 의복 선호도에 따른 인지 체형 및 신체 만족도

한국과 중국 여대생의 의복 선호도에 따른 인지 체형 및 신체 만족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독립변수를 의복 선호도(선호하는 스커트 및 팬츠 길이, 의복의 맞춤새, 의복의 색상, 선호하는 스타일)로 하였으며, 종속변수는 인지 체형 및 신체 만족도로 하였다. 전신, 상반신, 하반신의 인지 체형(3문항)과 신체 만족도(3문항) 관련 문항의 평균값을 계산하여 각각 인지 체형과 신체 만족도라 하여 통계 분석하였다. 한국과 중국 여대생의 신체 인지에 관련된 문항은 5점에 가까울수록 본인의 체형이 통통하다고 인지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신체 만족도에 관한 문항은 5점에 가까울수록 자신의 체형에 만족하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결과는 <표 13>과 같다. 인지 체형의 Cronbach's Alpha 값은 0.885, 신체 만족도의 Cronbach's Alpha 값은 0.814로 나타났다.

선호하는 스커트의 길이에 따른 인지 체형과 신체 만족도를 살펴보면, 한국과 중국 모두 미니스커트를 선호할수록 자신의 인지 체형이 마르다고 인식하였으나, 한국 여대생의 경우 오히려 '미니스커트'를 선호하는 응답자들이 '내츨/니렁스/미디/맥시'를 선호하는 응답자에 비해 신체 만족도가 더 불만족스럽다고 응답하였고, 중국 여대생의 경우 '미니스커트'를 선호하는 응답자들이 '내츨/니렁스/미디/맥시'를 선호하는 응답자에 비해 자신의 신체 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부분은 중국 여대생의 선호하는 스커트 길이에 따라 인지

체형은  $p < .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따라서, 중국 여대생의 경우, 미니스커트를 선호할수록 자신의 체형이 마르다고 인식하는 것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선호하는 스커트의 길이에 따른 응답자의 분포를 살펴보면, 한국의 경우 미니스커트를 더욱 선호하는 반면 중국 여대생들은 미니스커트에 비해서는 길이가 긴 스커트를 더욱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호하는 팬츠의 길이에 따른 인지 체형과 신체 만족도를 살펴보면, 한국은 '슬랙스'를 선호한 응답자들이 자신의 체형이 마르다고 인식하였으며, '슬랙스'를 선호할수록 신체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중국은 '숏팬츠'를 선호한 응답자들이 자신의 체형이 마르다고 인식하였으며, '숏팬츠'를 선호할수록 자신의 신체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 중 선호하는 팬츠 길이에 따른 인지 체형은 한국과 중국 모두  $p < .01$  수준에서 모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앞선 연구결과에서 한국에서 유행하고 선호하는 하의의 맞춤새가 타이트핏(스트레치 핏, 슬림핏)이라는 연구결과에 의해 한국 학생이 타이트핏의 '슬랙스'를 착용하고 느끼는 심리가 중국 학생의 '숏팬츠'를 착용하고 느끼는 심리와 같은 효과로 작용한다고 판단된다. 또한, 선호하는 팬츠의 길이에 따른 응답자의 분포를 살펴보면, 한국 여대생들에 비해 중국 여대생들이 다양한 팬츠의 길이를 선호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선호하는 상의의 맞춤새에 따른 인지 체형과 신체 만족도를 살펴보면, 한국과 중국 여대생 모두 '릴렉스드핏/오버사이즈핏'을 선호하는 집단이 가장 자신을 통통하다고 인지하였다. 또한, 한국의 경우 '내츨 핏'을 선호하는 집단이 가장 자신을 날씬하다고 인지하고 신체 만족도도 가장 높았으며, 중국의 경우 '스트레치핏/슬림핏'을 선호하는 집단이 가장 자신을 날씬하다고 인지하고 신체 만족도도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 중 선호하는 상의의 맞춤새에 따른 인지 체형은 한국과 중국 모두  $p < .001$  수준에서 모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한국 여대생은 '스트레치핏/슬림핏', '내츨 핏'을 착용하는 집단은 자신을 비교적 날씬하다고 인지하는 반면, '릴렉스드핏/오버사이즈핏'을 선호하는 집단은 그에 비해 자신을 통통하다

〈표 13〉 한국과 중국 여대생의 의복 선호에 따른 인지 체형 및 신체 만족도

설문항목		한국			중국		
		N	인지체형	신체만족도	N	인지체형	신체만족도
선호하는 스커트 길이	미니스커트	153	2.88 (0.93)	2.35 (0.92)	98	2.98 (0.79)	2.66 (1.00)
	내추럴/니랭스/미디/맥시	55	3.16 (0.95)	2.54 (0.81)	143	3.29 (0.90)	2.63 (0.85)
t-value		-	-1.865	-1.374	-	-2.766**	0.263
선호하는 팬츠길이	숏팬츠	69	2.97AB (0.90)	2.32 (0.91)	74	2.88B (0.82)	2.80 (0.94)
	자메이카/버뮤다/패달/카프리	45	3.36A (0.79)	2.36 (0.90)	76	3.22A (0.88)	2.59 (0.92)
	슬랙스	94	2.75B (0.99)	2.47 (0.89)	91	3.35A (0.86)	2.56 (0.89)
F-value		-	6.575**	0.557	-	6.463**	1.600
선호하는 상의 맞음새	스트레치핏/슬림핏	77	2.83B (0.95)	2.40 (0.84)	64	2.82B (0.76)	2.77 (0.88)
	내추럴핏	70	2.77B (0.92)	2.51 (0.90)	100	3.16A (0.86)	2.71 (0.89)
	릴렉스드핏/오버사이즈핏	61	3.33A (0.87)	2.26 (0.94)	77	3.46A (0.88)	2.46 (0.95)
F-value		-	7.224***	1.353	-	10.014***	2.432
선호하는 하의 맞음새	스트레치핏/슬림핏	173	2.83 (0.94)	2.45 (0.89)	123	2.97 (0.89)	2.78 (0.93)
	내추럴핏/릴렉스드핏/오버사이즈핏	35	3.59 (0.67)	2.14 (0.88)	118	3.36 (0.81)	2.50 (0.88)
t-value		-	-5.720***	1.855	-	-3.571***	2.427**
상의 선호색상	원색계열	90	2.89 (0.93)	2.43 (0.80)	132	3.08 (0.81)	2.65 (0.83)
	무채색계열	118	3.01 (0.96)	2.37 (0.97)	109	3.27 (0.93)	2.64 (1.01)
t-value		-	-0.883	0.452	-	-1.749	0.035
하의 선호색상	원색계열	22	3.05 (0.93)	2.55 (0.86)	50	3.15 (0.91)	2.46 (0.93)
	무채색계열	186	2.94 (0.95)	2.38 (0.90)	190	3.17 (0.87)	2.69 (0.91)
t-value		-	0.474	0.819	-	-0.108	-1.605
선호의복스타일	트렌디	19	2.89 (0.99)	2.28 (0.83)	25	3.05AB (0.71)	2.56AB (0.98)
	캐주얼/스포티	90	3.03 (0.92)	2.37 (0.87)	147	3.37A (0.85)	2.49B (0.85)
	모던/클래식	59	2.84 (0.96)	2.46 (0.93)	33	2.85AB (0.88)	2.89AB (0.88)
	로맨틱/페미닌	40	2.98 (0.98)	2.43 (0.95)	36	2.71B (0.82)	3.09A (0.99)
F-value		-	0.552	0.259	-	8.053***	5.331**

- 인지체형 : 5점으로 갈수록 본인의 체형이 통통하다고 인지

- 신체만족 : 5점으로 갈수록 자신의 체형에 대해 만족

(\* $p < .05$ , \*\* $p < .01$ , \*\*\* $p < .001$ ) : 유의차가 나타나는 항목

Alphabet is the result of post-hoc test(Scheffe test), (A>B>C)

고 인지하였다. 중국 여대생은 '스트레치핏/슬림핏'을 착용하는 집단은 자신을 날씬하다고 인지하였고, 상대적으로 '내츄럴핏', '릴렉스드핏/오버사이즈핏'을 착용하는 집단은 자신을 통통하다고 인지하였다.

선호하는 하의의 맞음새에 따른 인지 체형과 신체 만족도를 살펴보면, 한국과 중국 여대생 모두 '스트레치핏/슬림핏'을 선호하는 집단이 가장 자신을 날씬하다고 인지하였고 신체 만족도도 높았다. 이러한 결과 중 선호하는 하의 맞음새에 따른 인지 체형은 한국과 중국 모두  $p < .001$  수준에서 모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선호하는 하의 맞음새에 따른 중국 여대생의 신체 만족도 항목에서  $p < .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한국과 중국 여대생 모두 '스트레치핏/슬림핏'을 선호하는 집단이 '내츄럴핏/릴렉스드핏/오버사이즈핏'을 선호하는 집단에 비해서 자신의 인지 체형이 더 날씬하다고 인지하는 것으로 보이며, 중국 여대생은 이러한 선호하는 하의 맞음새가 신체 만족도에도 영향을 주고 있었다. 또한, 한국과 중국 여대생의 선호하는 의복 맞음새의 가장 큰 차이점은 중국이 한국에 비해서 '내츄럴핏/릴렉스드핏/오버사이즈핏'의 여유로운 핏을 훨씬 높은 비율로 선호하고 있는 부분이다.

선호하는 상·하의의 색상에 따른 인지 체형과 신체 만족도를 살펴본 결과, 모든 항목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한국과 중국 여대생 모두 무채색 계열의 색상을 상·하의 모두에서 가장 선호하였으며 원색계열의 색상을 한국 여대생에 비해 중국 여대생이 높은 비율로 선호하는 것으로 보아 한국에 비해 중국 여대생이 다양한 색상을 선호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선호하는 스타일 분류에 따른 인지 체형과 신체 만족도를 살펴본 결과, 한국의 경우 '모던/클래식' 스타일을 선호하는 집단이 가장 자신의 체형이 날씬한 것으로 인지하고 있었으며 신체 만족도가 가장 높았다. 중국의 경우, '로맨틱/페미닌' 스타일을 선호하는 집단이 가장 자신의 체형이 날씬하다고 인지하였으며, 신체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특히, 선호하는 스타일에 따라 중국 여대생의 인지 체형과 신체 만족도는 각각  $p < .001$ ,  $p < .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 IV. 결론 및 제언

한국 패션 기업들은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성장수단으로 중국시장에 적극적인 진출을 모색하고 있으며, 중국 내 한류열풍은 이들 기업에 좋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어 중국 시장에 대한 소비자 연구는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과 중국 여대생을 대상으로 의복 선호도의 차이를 밝히고, 그에 따른 인지 체형과 신체만족에 있어 어떠한 차이가 나타나는지 연구를 진행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한국과 중국 여대생이 선호하는 스커트의 길이, 팬츠 길이에 있어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한국은 과반수를 넘는 응답자가 미니스커트를 착용한다고 응답한 반면, 중국 여대생은 미니스커트와 무릎선 기장의 스커트를 많이 착용하였고, 기장이 긴 스커트 착용의 비율도 한국에 비해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또한, 팬츠의 경우, 중국 여대생들이 다양한 기장의 팬츠를 한국 여대생에 비해서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과 중국 여대생의 선호하는 맞음새 차이를 살펴본 결과, 중국은 비교적 편안하고 실용적인 핏을 선호하는 반면, 한국 여대생들은 최근 트렌드를 반영하여 상의에서는 '오버사이즈핏'이나, '슬림핏'을 선호하고, 하의에서는 '슬림핏'이나 '스트레치핏'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과 중국 여대생들이 선호하는 상하의 색상으로는 모두 '무채색 계열'로 나타났다. 그러나 비교적 중국 여대생들이 한국 여대생에 비해 다양한 색상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과 중국 여대생의 선호하는 의복의 스타일은 한국과 중국 여대생 모두 활동하기 편안한 '캐주얼'을 가장 선호하는 의복 스타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국 여대생은 중국 여대생에 비해 더 높은 비율로 '모던', '클래식', '페미닌' 스타일을 착용하고 구입하는 반면, 중국 여대생은 한국 여대생에 비해 더 높은 비율로 '캐주얼'과 '스포티' 스타일을 착용하고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한국 여대생들이 키와 가슴둘레는 더 크기를

희망하였으며, 허리둘레와 BMI지수는 더 작아지기를 희망하였다. 중국 여대생들은 몸무게와 엉덩이 둘레가 더 작아지기를 희망하였다. 중국과 한국 모두 하반신이 가장 통통하다고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국 여대생이 중국 여대생에 비해 전신과 상반신 항목에 있어서 자신의 체형이 더 말랐다고 인지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한국과 중국 여대생 모두 하반신 신체 만족도가 상반신과 전신 신체 만족도에 비해 가장 불만족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국 여대생이 상반신과 하반신 체형 모두에서 더 불만족스럽다고 인지하고 있었다. 인지 체형(저체중, 표준, 과체중)에 상관없이 한국 여대생에 비해 중국 여대생의 신체 만족도 평균값이 모든 집단에서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한국과 중국 여대생 모두 자신의 체형이 마르다고 인지할수록 신체 만족도가 높은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3. 선호하는 스커트의 길이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한국과 중국 모두 '미니스커트'를 선호할수록 자신의 인지 체형이 마르다고 인식하였다. 선호하는 팬츠의 길이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한국은 슬렉스를 선호한 집단이, 중국은 숏팬츠를 선호한 집단이 자신의 체형이 마르다고 인식하였으며, 신체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선호하는 상의의 맞음새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한국의 경우 '내츄럴 핏'을 선호하는 집단이, 중국은 '스트레치핏/슬림핏'을 선호하는 집단이 가장 자신을 날씬하다고 인지하고 신체 만족도도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선호하는 하의의 맞음새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한국과 중국 여대생 모두 '스트레치핏/슬림핏'을 선호하는 집단이 '내츄럴핏/릴렉스드 핏/오버사이즈핏'을 선호하는 집단에 비해서 자신의 인지 체형이 더 날씬하다고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호하는 스타일 분류에 따른 결과를 살펴본 결과, 한국의 경우 '모던/클래식' 스타일을 선호하는 집단이, 중국은 '로맨틱/페미닌' 스타일을 선호하는 집단이 가장 자신의 체형이 날씬한 것으로 인지하고 있었으며 신체 만족도가 가장 높았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한국과 중국 여대생의 의복 선호도, 인지 체형과 신체 만족도에 있어서 크게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체적으로 한국 여대생에

비해 중국 여대생이 자신의 체형에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선호하는 스커트 및 팬츠 길이, 선호하는 의복의 맞음새, 선호하는 의복의 스타일, 색상 등 의복 선호도에 있어서도 중국 여대생이 한국 여대생에 비해 편안하고 활동적인 스타일을 추구하면서 유행을 따르기보다 개성적이고 다양한 디자인을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연구 경향을 반영하여 추후 중국에 진출하려는 국내 패션기업이 성공적으로 중국 시장에 진입하기 위한 기초자료가 되길 바라며 한국 소비자 집단과는 다른 중국 소비자 집단의 전반적인 인지 체형, 신체 만족도, 의복 선호도 간의 관계를 파악하여 의복 설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조사 대상자에 대한 설문을 통하여 각자 체형에 대한 주관적 평가 자료만을 비교 분석하여 실제로 측정된 신체치수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과 중국 여대생의 설문 조사를 한국에서 진행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제한점이 있다. 특히, 한국체류기간이 6개월 이하일지라도 한국 거주 중국인은 한국의 착장경향에 영향을 받은 부분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결과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앞으로 의류 산업은 더욱 더 글로벌화 되고, 특히 한류가 봄을 일으키면서 K-pop에 이어 K-fashion이라는 신조어도 등장한 만큼 앞으로 한국 의류 산업의 해외 진출은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한류의 발원지였던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으로 많은 한국의 패션 기업들이 중국 진출을 시도하고 있다. 한국 의류 산업의 성공적인 중국 진출을 위해서는 중국 소비자에 대한 연구가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특히 패션 산업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20대 여성에 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가 중국과 한국 소비자들에게 더욱 더 적합한 디자인을 제공하고, 국가별 소비자 특성에 적합한 의류 제품 생산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 1) 한명숙 (2009), 의복 구매 행동의 비교 문화적 연구,

- 복식문화연구, 17(1), pp. 162-176.
- 2) 박혜선, 해비 (2012), 20대 중국 여성들의 패션 라이프 스타일에 따른 의복 구매행동과 한류 및 한국 패션에 대한 태도, *한국의류학회지*, 36(7), pp. 690-702.
- 3) 신수아, "이랜드, '공격적 확장전략'언제까지? SPA브랜드 글로벌화...신규 출점, 개발 사업에도 적극적", 자료검색일 2014. 3. 23,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3042210339645835&outlink=1>
- 강소영, "현명한 패션기업은 중국시장에 간다", 자료검색일 2014. 3. 23, <http://www.newspim.com/view.jsp?newsId=20130620000226>
- 4) 조윤주 (2005), 성인여성의 체형인식에 따른 의복 선호도 차이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3(10), pp. 155-165.
- 5) 박우미 (1999), 신체만족도에 따른 선호의복스타일에 대한 한국과 미국 여대생과 비교, *복식*, 48, pp. 25-36.
- 6) 신주동, 최종명 (2008), 여대생의 신체 만족도와 이미지에 따른 외모관리행동과 장신구 착용, *복식문화연구*, 16(2), pp. 305-318.
- 7) 박재경 외 (2010), 한국과 몽골 여대생의 실제체형과 인지체형 및 신체만족도에 관한 비교, *한국의류학회지*, 34(9), pp. 1558-1566.
- 8) 김희정, "정상체중 여대생 내몸매 불만족", 자료검색일 2014. 3. 23, <http://www.dailian.co.kr/news/view/169433>
- 9) 박재경 외 (2010), *op. cit.*, pp. 1558-1566.
- 10) 박우미 (1999), *op. cit.*, pp. 25-36.
- 11) *Ibid.*, pp. 25-36.
- 12) 박재경 외 (2010), *op. cit.*, pp. 1558-1566.
- 13) 박재경, 남윤자, 최경미 (2004), 한국과 일본여대생의 실제체형과 인지체형 및 신체만족도에 관한 비교, *한국의류학회지*, 28(6), pp. 758-766.
- 14) 남윤자, 이승희 (2001), 한, 미 여대생의 실제체형과 인지체형의 만족도에 관한 비교, *한국의류학회지*, 25(4), pp. 764-772.
- 15) 박우미 (2000), 신체에 대한 의식과 만족도에 대한 한국과 미국여대생의 비교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4(5), pp. 736-747.
- 16) 손희순 외 (2000), 한국과 중국여대생의 의복 맞춤세 선호도 및 의복행동 비교 연구, *패션비즈니스*, 4(1), pp. 59-72.
- 17) 임순 외 (1999), 한국과 중국조선족 여대생의 체형 비교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3(8), pp. 1228-1239.
- 18) 장희경, 손희순 (2009), 중국과 한국 20대 여성의 체간부 신체치수와 체형 비교 분석, *패션비즈니스*, 13(2), pp. 17-29.
- 19) 손희순 외 (2000), *op. cit.*, 59-72.
- 20) 박숙현, 권미정, 이경림 (2004), 선호스타일과 착용스타일별 신체인지도와 만족도 차이 비교(제2보), *복식문화연구*, 12(4), pp. 511-528;
- 이경림 (2004), 대학생의 실제 체형과 인지 체형에 관한 연구,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 109-120;
- 이경림 (2004), 신체인지도 및 신체만족도에 따른 선호스타일과 착용스타일 비교, 경성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 61-72.
- 21) 박재경, 남윤자, 최경미 (2004), *op. cit.*, pp. 758-766.
- 22) 박재경 외 (2010), *op. cit.*, pp. 1558-1566.